

한국포장기계협회

Interpack 2008 한국관 운영

세계포장기계총연맹 총회 참석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최상식)가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세계 최대 포장전시회인 Interpack 2008(독일 뒤셀도르프 포장전람회)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 참가했다.

포장기계협회는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2005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관을 구성, 참가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 귀국했다.

이번 전시회는 세계 59개국 2천7백44개사(19개홀 31만㎡)가 참가하고 1백21개국 17만9천명(우리나라 참관 약 8백명 추산)의 바이어가 방문해 명실상부한 세계최대의 포장전시회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우리나라에서 총 25개사가 참가, 한국포장기계협회가 주관한 한국관에는 (주)리팩을 비롯하여, (주)선진에스엠, 한국뉴매틱(주), (주)산호기계, (주)HPM, (주)엔터라인, (주)DDSM, (주)KMG, (주)자비스, (주)우정테크, (주)가성팩, KPMA 등 12개사 참가, 전시했다.

그 결과 총 상담 1천9백30건(2천4백80만불) 계약 66건(2백44만불)과 대리점상담 5백49건의 성과를



▲ 한국포장기계협회 Interpack 2008 한국관 운영

올렸다. 또한 (주)흥아기연, (주)세종과마텍, (주)카운텍의 합동 컨소시엄 부스에는 많은 외국인 바이어의 상담이 줄을 이었으며 그 밖에 (주)제팩, (주)스카이소프트젤, (주)인트라이스 등 개별 참가한 13개 업체도 큰 성과를 거두고 귀국했다.

한편 Interpack 2008 전시회 기간 중인 4월 27일, 세계 포장기계인의 유일 공동체 모임인 세계포장기계협회총연맹(COPAMA) 총회가 전시장 CCD룸에서 한국을 비롯한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중국, 러시아,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14개국의 대표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각국의 대표들은 자국의 포장기계 수출입 동향과 경제 현황을 보고하고 토론했으며 한국의 대표로는 한국포장기계협회의 김영순 상근부회장이 참석, 한국포장기계협회의 현황, 국내의 경제동향과 우리나라의 2006년도 및 2007년도의 포장기계의 수출입 동향을 보고하는 한편 KOREA PACK 2008에 대한 소개를 곁했다. 한편 Interpack 2011은 2011년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 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표준협회

‘국가품질상’ 세미나 개최

품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 갖는 계기

한국표준협회(회장 최갑홍)가 지난 달 8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가품질상과 MB 모델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란 주제로 국가품질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MB모델은 80년대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가며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을 보이던 미국이 경쟁력의 원천이 ‘품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국가적 차원의 품질상 제도의 운영을 통해 90년대 경제부흥을 이끌어 낸 방법론이다.

현재 일본 및 유럽,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품질 프로그램의 70% 이상이 벤치마킹하거나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3년부터 미국의 말콤볼드리지국가품질상(MBNQA, 이하 MB 모델)을 접목한 ‘대한민국 국가품질상’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11월에 수여하는 국가품질상에서는 품질경영 활동에 공을 세워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업, 기업인 및 근로자를 선발하여 포상·격려하고 있다.

특히 국가품질상 수상자 및 업체들은 기업 현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현재 7천5백여개사에서 50만 근로자가 참여, 5만여명의 현장 개선리더와 1천2백여명의 품질명장이 소그룹 개선 조직인 분임조를 주도하는 등 국가 품질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식경제부의 MB모델과 국가정책방향 이란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성균관대 신

유관단체

완선 교수의 'MB모델의 이해와 기업경쟁력', 서강대 서창적 교수의 '대한민국 국가품질상'에 대한 발표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MB모델인 '국가품질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품질 시스템 정착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기업 경쟁력 향상의 기본인 '품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가품질상과 유사한 시상제도로는 미국상무성 산하 국가표준기술원의 '말콤 볼드리지 국가질상', 일본과학기술연맹의 '데미상', 유럽품질재단의 '유럽품질상' 등이 있다.

한국포장기술인협회

준계 체육대회 개최

친목 교류 도모

한국포장기술인협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달 25일 김포 대명초등학교에서 준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80여명의 포장기술인들이 참석해 친목을 도모하고, 포장업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 한국포장기술인협회 준계 체육대회 개최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축구, 배구, 족구, 농구 등을 통해 회원간의 친목을 다졌으며 회원들의 소속 업체에서 식음료 등을 협찬했다.

한국식품공업협회 **2008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개최**

비즈니스 데이 운영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박승복)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08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 지난 달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식품전, 식품기술전 및 식품안전전으로 구성된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은 국내 최초로 UFI(국제전시연맹) 인증을 취득한 식품관련 전문전시회로서 올해로 26회를 맞이한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6백70개사와 미국, 중국, 스페인, 프랑스 등 해외 34개국 4백사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 5만여명이 방문, 60여개국으로부터 3천명의 해외바이어가 참관하여 수출업체들과 활발한 상담을 벌였다. 이로써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식품관련 전시회 중 네 번째 규모의 전시회로



▲ 한국식품공업협회 2008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개최

유관단체

자리매김하게 됐다. 또한 경기도,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농축산물 산업 육성을 위해 관내 다수 업체의 참가를 지원하여 국내 지방업체 참가 증가가 두드러진 것도 특색이다.

이번 전시회는 한미 FTA의 양국 의회 비준을 앞두고 농산물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려는 국내의 업체 및 바이어들에게 최적의 마케팅장을 제공했다.

특히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식품안전에 관련된 최신기기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한편 포장관련 업체로는 (주)에코메이트코리아, 영일산기(주), 인팩글로벌, 일홍자동기계(주), (주)탐스텍, 태현포장기계, (주)티피지, (주)한국유니콤, 한신라벨부착기(주), 한신파워텍(주), 한얼기계 등이 참가했다.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지자체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 제천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충청북도 제천시가 전국에서 스티로폼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가장 잘하는 지자체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회장 지명석)는 지난 달 27일 서울가든 호텔에서 열린 “제8회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충청북도 제천시를 최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제천시는 2007년 한 해 동안 스티로폼 81톤(2.5톤 차량 812대분)을 재활용하는 성과를 올렸다. 제천시는 자체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준공하고 166㎡ 규모의 스티로폼 감용건물동을 건립운영하면서 감용기 1백80kg/h 1대와 예비 1대 등 총 2대를 가동하여 스티로폼 81톤을 재활용 했다.

이는 경제적 가치로는 이산화탄소 발생 4,794톤/년 감축, 1백 l 중량제봉투 8만천2백장(1억13백만원) 절약, 쓰레기매립장 8백12평(높이 3m) 재사용, 산업계는 약 5천만원의 부가가치 창출로 각각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제천시는 단체장 및 담당자의 높은 관심과 재활용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 주민공모제에 의한 자원관리센타 부지를 선정해 생활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최첨단시설을 2003년 기공하여 금년 6월 완공 중에 있다.

사업비 4백68억원 규모의 최첨단 생활쓰레기종합단지에는 매립 및 소각 시설 뿐만이 아니라 음식물 처리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등이 있다. 또한 제천시는 재활용에 대한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자원관리센타 내에 재활용 전시장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주민 2천8백37명을 대상으로 1백9회에 걸쳐 주민교육을 실시하였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활용품 수거를 위하여 홍보물 200천매를 제작 배포하고 제천시 직영차량 6대와 환경미화원 등의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재활용이 생활 가운데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선례를 통해 타지자체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전국 시도별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지자체로 서울 양천구, 부산 동래구, 대구 달성군, 광주 서구, 대전 서구, 인천 남동구, 울산 북구, 경기 고양시, 강원 속초시, 충남 공주시, 전남 목포시, 전북 익산시, 경남 김해시, 경북 김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1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협회는 최우수지자체에 환경부 장관 표창 외에 상패 및 부상 5백만원과 스티로폼을 재활용해 만든 사진액자 1상자(40개)를, 우수지자체 15개소에는 상패 및 부상 1백만원과 사진액자 각 1상자씩을 수여했다. 부상은 각지자체 환경미화원 자녀의 장학금 등 청소 담당직원의 복리후생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협회는 이날 스티로폼 재활용 유공자 (주)하이우드 안윤식 이사 등 5명을 표창하고 최우수지자체 재활용 수범사례 발표 등의 행사도 함께 열렸다.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스티로폼 재활용에 노력한 시군구 재활용 담당자 및 청소미화원을 위로, 격려하기위해 지난 '9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협회는 금호석유화학, 동부하이텍, SH에너지화학, LG화학, 제일모직, 한국바스프 등 스티로폼 원료 메이커 6개사와 포장재 가공업체 모임인 한국EPS형물협회의회가 스티로폼 포장재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1993년 설립됐다.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협회는 발포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4백개소의 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인가(환경부장관 제7호)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대한목재협회

목재업계, 협회 공식 출범

당분간 운영위원회 체제로 운영

대한목재협회는 최근 산수종합목재, 상아목재, 금화방부목재, 경원목재, 해양목재 등 78개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협회는 수도권지역 4백여개 목재회사 가운데 우선 1백20개사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전국 단위의 대표기구로 육성키로 했다.

우선 각 지역에 산재한 목재회사들을 하나의 공간에 모아 목재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또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하역사, 운송사, 항운노조 등과 단체협상, 정부 및 행정관청에 의견 제출 및 조정-산재보험료 조정, 교통 및 환경문제, 원부자재 공동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분한 운영위원회 체제로 운영하고 초대회장은 내년 2월 선출하기로 했다. 대표 운영위원회에 영도목재 양종광 대표가 선출됐다.

목재관련 중기 단체로는 49개 회원사를 둔 목재공업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다.